주일 예배 2026 년 11 월 8 일 오후 1 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이애림

묵상 기도 / 다같이

찬송 / 면류관 벗어서 / 찬송가 25 장

성시교독 / 성시교독문 81 번 (에베소서 4 장) / 다같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 찬송가 592(신) 311(구)

기도 / 한광기 장로

성경 봉독 / 예레미야 33 장 1-3 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의 나라가 보입니다**

찬송 / 예수 사랑하심을 / 찬송가 563(신) 411(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예수께서 오실 때에 1,2 절 / 찬송가 564(신) 299(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 늘 설 교 말 씀 요 약

1. 유다 나라가 멸망해 가던 때, 한 사람의 눈앞에는 나라의 멸망과 절망적인 현실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약속하셨습니다.

2.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역사가 무너지고 인간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으며 결국 완성됩니다.

3. 그 나라는 먼 훗날에만 이루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그분의 뜻에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눈앞의 현실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생명샘 장로교회 2026 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 1:15

지난 주
설교 요약

믿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 6:17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갈라디아서 6:17). 복음을 전하다가 입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단순히 육체에 남은 고난의 자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부 유대교 출신 성도들은 할례를 강조하며 복음에 다른 조건을 더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열심을 자랑하기보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감당했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믿음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질서가 아닌 다른 기준을 따라가는 세상을 보면서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말입니다. 믿음은 단지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종교적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그 흐름에 맞서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흔적을 남깁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은혜란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을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을 얻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복음의 질서를 거스르는 가치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기준을 앞세우는 현실을 보며 거룩한 괴로움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세상을 향한 우월감이나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어긋나는 것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 그것 역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할 예수의 흔적입니다.

생 명 샘 소 식

1. 2026 년 교회 표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왕 되시는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펼쳐지길 소원합니다.**

2.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의 힘을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듯, 우리의 영은 말씀을 통해 건강해집니다.**

3. 2026 년 11 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또 한 해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귀한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4. 11 월 22 일 주일,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5. 11 월 29 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회 총회 있습니다.

6. 12 월 1 일 화요일 저녁 8 시에 운영위원회 모입니다.

7. 건강 회복 중에 계신 분들(강영호, 박래석, 한규철)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8. 김종원(윤하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12 월 중순 즈음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11 월 예 배 위 원					
안 내	한규철		김정신		
기 도	조준기(1)	한광기(8)	최명희(15)	최상천(22)	조은영(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1 시	주일 오후 3 시	월요일 저녁 7 시 30 분	금요일 저녁 8 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